“충무공 3도수군 통제영 사적 지정을”

여수시민단체 “임진왜란 극복 본거지…관아 건물 복원·역사교육장 활용” 건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승전의 바탕이 된 전라좌수영 겸 3도수군통제영 본영의 복원과 국가 사적지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시종고회와 여수시문화원,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제477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지난 28일)을 맞아 건의서를 발표하고 ‘최초 3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전라좌수영겸 3도수군통제영인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됐고, 1593년 8월 최초의 3도수군통제사로 제수돼 부임한 곳이라고 밝혔다.

또 3도수군을 지휘한 최고 사령부인 본영으로써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국난 극복의 본거지라는 역사적 사실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17년간 조선의 바다를 지켜온 국방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사적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효주 전라좌수영 겸 최초 3도수군통제영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위원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란을 승전으로 이끈 역사적 현장인 전라좌수영겸 3도 수군통제영 본영의 동헌 등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해 국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 복원 및 호국 문화재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국 문화재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여수가 호국의 성지임을 널리 알려 국난극복 역사의 교육장으로 삼고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좌수영겸3도수군통제영은 국보 진남관 인근에 존재했던 동헌 등 관아 건물 복원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2015년 5월 3도수군통제영 동헌일원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1, 2차 편입 토지매입 및 건축물 11동이 철거됐다.

2019년 3월 1~3단계 발굴조사가 완료됐다. 발굴결과 통제영은 최소 3차례 이상 화재 후 재건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1815년에 제작된 ‘호좌수영지 영성도’에 그려진 동헌 등 배치도와 1900년대 사진 등과도 일치한 점을 밝혔다.

한편 전라좌수영 겸 최초 3도수군통제영 국가 문화재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경상, 전라, 충청 삼도수군절도사로서 수군을 지휘한 여수시 진남관과 동원 일대를 국가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국가가 외면한 수해 배상 우리가 한다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 모금운동 나서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주민 62명 23억 피해

“국가가 외면한 수해 피해 배상 우리가 한다.”

2020 8월 8일 섬진강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민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한 푼도 배상 받지 못한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주민 돕기 범군민 모금 운동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창승·정영이·소재덕·정경원)에 따르면 일반 피해 지역 주민 1964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수해피해액의 48%에 해당하는 450억여원의 배상금이 지급 됐지만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 62명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배상하지 않고 있어〈광주일보 2022년 1월 18일자 15면 보도〉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달 말까지 범군민 모금 운동을 펼친다.

하천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구역으로서 국가가 하천의 유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례 지역 하천 홍수관리구역 피해 주민은 62명으로 피해액만 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례읍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김성모(47)씨는 “같은날 똑 같이 수해를 입었다. 같은 수재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500만원을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에 기탁했다.

모금 운동 관련 문의는 섬진강수해극복구례대책위원회로 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녹차, 8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수상

군 “유기농 재배·품질관리로 해외시장 경쟁력 갖출 것”

보성녹차가 8년 연속 2022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해 박우육(가운데) 보성군수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녹차가 8년 연속으로 ‘2022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지역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2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시상식에서 보성녹차가 지역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성녹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이어 2009년부터 미국(USDA), 유럽(EU), 일본(JAS) 등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명품 보성녹차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가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기농 재배와 철저한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연간 30억 원 수출을 목표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형 프리미엄 마켓 입점 등 전 세계에서 보성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명성을 쌓은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전략, 체계, 관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 성과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섬진강기차마을서 ‘언빌리버블쇼!’

15일까지 주말·공휴일 이벤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버블쇼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곡성군은 5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버블쇼, 마술쇼, 저글링쇼 등으로 이루어진 공연인 ‘언빌리버블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은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장미무대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3번씩 진행된다. 언빌리버블쇼 1회차 공연이 끝날 때마다 막간을 이용해 행운의 돌림판 이벤트도 열린다. 돌림판 캐릭터 컵, 캐릭터 인형, 손수건 등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5월 한 달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속 인스타그램 핫플을 찾아라’ 이벤트가 진행된다. 섬진강기차마을 인스타그램(@gstrainvillage_official)을 팔로우하고 기차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을 ‘#곡성_핫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 종료 후 50명을 선정해 치킨, 커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과 업로드한 사진으로 제작한 포토카드를 지급한다. 기차마을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GS칼텍스, 13년째 ‘희망에너지교실’ 운영

GS칼텍스가 지역 내 아동들의 꿈과 비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희망에너지교실 2022년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

올해 13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성예 회장, 여수시 환경복지국 서정신 국장,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 오문현 부문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와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친환경 이해하기, 체험하기, 표현하기’ 등 세 가지 주제로 아동들이 자원의 선순환 구조와 그 가치를 이해하고 탄소 저감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GS칼텍스는 4월 지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성과를 정리한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고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했다.

오문현 GS칼텍스 부문장은 “희망에너지교실은 여수지역 아동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올해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친환경 가치 실현 및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등과 접목해 아이들이 탄소 저감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해룡농어촌도서관 전시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시립도서관서 미술작품 감상해요”

순천시는 5월부터 삼산도서관, 신대도서관, 풍덕글마루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 등 4개의 시립도서관 내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한 점 미술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한 점 미술관은 도서관의 비어있는 벽면을 활용해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 점 미술관에서는 각 도서관마다 다른 주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삼산도서관은 ‘작품으로 만나는 순천’, 신대도서관은 ‘세계 명화’, 풍덕글마루도서관은 ‘여행 스케치’, 해룡농어촌도서관은 ‘농어촌 풍경’ 등이다. 전시작품은 삼산도서관 미술품 대출사업을 통해 대출 가능한 회화작품과 명화 아트프린트, 사진 등으로 각 도서관별 주제에 맞게 선정해 격월로 교체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